
2018년도 상반기 해외연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2018. 4. 8 ~ 4. 17

강현수 연구원장

김경태 연구위원

권혜정 연구원



■ 목 차 ■

I. 연수일정	1
II. 방문기관 위치 및 경로	7
III. 방문국 기본 현황	11
IV. 일자별 방문지역(기관) 소개	27

I. 연수일정

□ 1일차 : 4월 8일(일)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08일 (일)	인천		14:00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도착(연수등록 후 탑승수속) ○ 집결장소: 3층 출국장 2번과 3번 출입문 사이 (B구역 앞) Krispy Kreme매장 부근
		KE 129	16:50	대한항공으로 인천 출발(11시간 소요) (기내숙박)

□ 2일차 : 4월 9일(월)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09일 (월)	Auckland		07:10	오클랜드 도착 후 입국 및 세관수속
		전용 버스	08:30	오클랜드 출발 / 와이토모 이동(180km. 2.5시간)
	Waitomo		11:00	□ 지역생태자원 활용 우수사례지 방문 (Waitomo Glowworm Caves)
			12:30	오 찬
			14:00	와이토모 출발 / 마타마타 경유(105km. 1.5시간)
	Matamata		15:30	□ 영화촬영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컨텐츠 개발 우수사례지 방문(Hobbiton Movie Set)
			17:30	마타마타 / 로토루아 이동(75km. 1시간)
			18:30	□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지 방문 (Skyline Stratosfare Rotorua)
	Rotorua		21:00	Hotel 투숙

□ 3일차 : 4월 10일(화)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0일 (화)	Rotorua	전용 버스	08:30	호텔 조식
	Wai-O-Tapu		09:00	호텔 출발 / 와이오타푸 이동(30km. 30분) □ Wai-O-Tapu Thermal Wonderland 지역 방문
		Taupo	11:00	와이오타푸 출발 / 타우포 이동(45km. 40분)
	12:00		□ 지열을 이용한 민물새우양식 성공사례지 방문 (Huka Prawn Park)	
	13:00		□ 신재생 에너지(지열발전) 운영 우수사례지 방문 (Wairakei Power Station)	
	Auckland	14:00	타우포 출발 / 오클랜드 이동(270km. 3.5시간)	
		17:30	Hotel 투숙	
		19:00	만 찬	

□ 4일차 : 4월 11일(수)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1일 (수)	Auckland	전용 버스	09:00	호텔 조식
	Christchurch		11:30	□ 뉴질랜드 복지제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Carecenter 및 은퇴자 빌리지 방문
		Tekapo	13:00	오�클랜드공항 국내선터미널 도착 후 탑승수속 오찬(공항 내) Air New Zealand로 오클랜드 출발(1.5시간)
	Omarama		14:25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15:20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현장(도시재생) 방문 (New Regent Street & Container Mall)	
		16:30	크라이스트처치 출발 / 테카포 경유(225km. 3시간)	
	Omarama	19:30	만 찬	
		20:30	테카포 출발 / 오마라마 이동(90km. 1시간)	
	21:30	Hotel 투숙		

□ 5일차 : 4월 12일(목)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4월 12일 (목)	Omarama	전용 버스 (2대)	08:00	호텔 조식 오마라마 출발 / 마운틴 쿡 이동(100km. 1.5시간)
	Mount Cook		09:30	□ 걷는길 관광자원화 추진 우수사례지 방문 (Mount Cook Tracking 코스)
	Twizel		11:30	마운틴 쿡 출발 / 트위젤 경유(70km. 50분)
			12:30	오찬
	Queenstown		13:30	트위젤 출발 / 퀸스타운 경유(200km. 2.5시간)
			16:00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 우수사례지 방문 (Gibbston Valley Wines)
	Te Anau		17:00	퀸스타운 출발 / 테아나우 이동(185km. 2.5시간)
			19:30	Hotel 투숙
	20:00	만찬		

□ 6일차 : 4월 13일(금)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3일 (금)	Te Anau	전용 버스 (2대)	09:00	호텔 조식 테아나우 출발 / 밀포드 사운드 이동(120km. 2시간)
	Milford-Sound		11:00	□ 연안 크루즈 개발 우수사례지 방문 (Milford Sound Day Cruise)
	Queenstown		14:00	밀포드 사운드 출발 / 퀸스타운 이동(290km. 4시간)
			18:00	저녁식사
			20:00	Hotel 투숙

□ 7일차 : 4월 14일(토)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4일 (토)	Queen stown	전용 버스 (2대)	08:30	호텔 조식	
			09:30	□ Arrowtown(뉴질랜드 초기 정착인 마을) 답사 □ 지역환경을 활용한 체험관광 우수사례지 방문 (Shotover Jet)	
			11:30	오 찬	
			NZ 831	15:10	Air New Zealand로 퀸스타운 출발(3시간)
	Sydney			16:30	시드니 도착 후 입국수속
		전용 버스		18:00	저녁식사
				19:30	Hotel 투숙

□ 8일차 : 4월 15일(일)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5일 (일)	Sydney	전용 버스	08:30	호텔에서 아침식사	
			09:30	시드니 출발(40km. 50분) □ 자연자원 보존지역 사례 방문 (Featherdale Wildlife Park)	
	Blue-			10:30	블루마운틴 이동(75km. 1시간)
	Mountains			11:30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방문
				15:30	블루마운틴 출발 / 시드니 이동(105km. 2시간)
	Sydney			17:30	Hotel 투숙
				18:30	만찬

□ 9일차 : 4월 16일(월)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6일 (월)	Sydney	전용버스	09:30	호텔에서 아침식사 □ 워터프런트 재개발 우수사례지 방문 (시드니 항만청 및 달링하버 현장) □ 달링하버 현장 답사 (Magistic Sydney Harbour Cruise) □ 다운타운 프로그램 정책개발 담당기관 방문 (NSW주 다운타운청)
			12:00	
			15:00	
			17:00	만찬 Hotel 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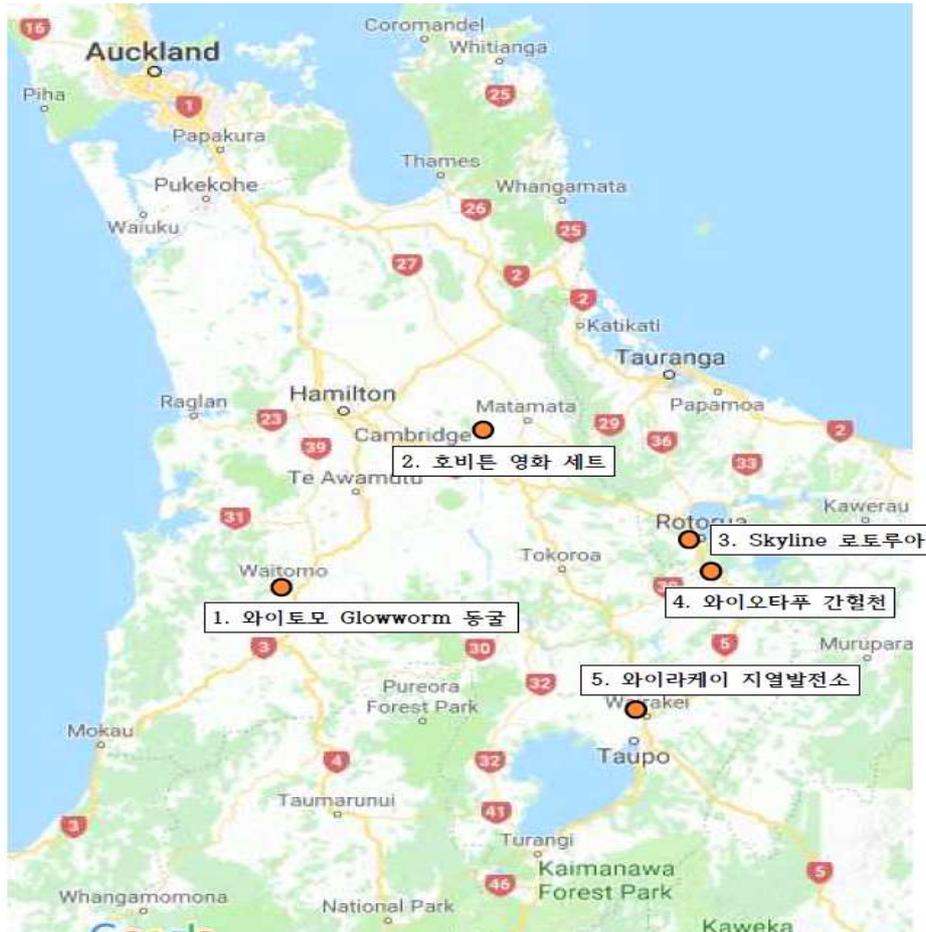
□ 10일차 : 4월 17일(화)

일자	연수지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04월 17일 (화)	Sydney	전용버스	05:20	호텔 출발 / 공항 이동(8km. 40분)
			06:00	시드니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주: 비행스케줄 관계로 아침식사가 제공되지 못함)
		KE 122	07:45	대한항공으로 시드니 출발(11시간 소요)
	인천		17:45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도착 후 입국 및 세관수속
			18:20	연수 종료

II. 방문기관 위치 및 경로

■ 뉴질랜드 북섬 방문지

1. 와이토모 Glowworm 동굴
2. 호비튼 영화 세트
3. Skyline 로토루아
4. 와이오타푸 간헐천
5.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 주요 동선

- 1일차
: 인천공항 출발 → 오클랜드 도착
- 2일차
: 오클랜드 도착 → 1. 와이토모 Glowworm 동굴 (2.5시간) → 중식 → 2. 호비튼 영화 세트장 (1.5시간) → 로토루아 이동 (1시간) → 3. Skyline 로토루아 → 석식 (Stratosfare) → 호텔 투숙
- 3일차
: 호텔 조식 후 4. 와이오타푸 간헐천 (30분) → 타우포 이동 (1시간) → 중식 → 5.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15분) → 오클랜드 이동 (3.5시간) → 호텔 투숙 및 석식
- 4일차
: 호텔 조식 후 케어센터 및 은퇴자 빌리지 방문 → 오클랜드 공항 출발 →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1.5시간)

■ 뉴질랜드 남섬 방문지

1. 테카포
2. 마운트 쿡 트래킹
3. Gibbston Valley Wines
4. 밀포드 사운드 Day Cruise
5. 애로우타운
6. Shotover J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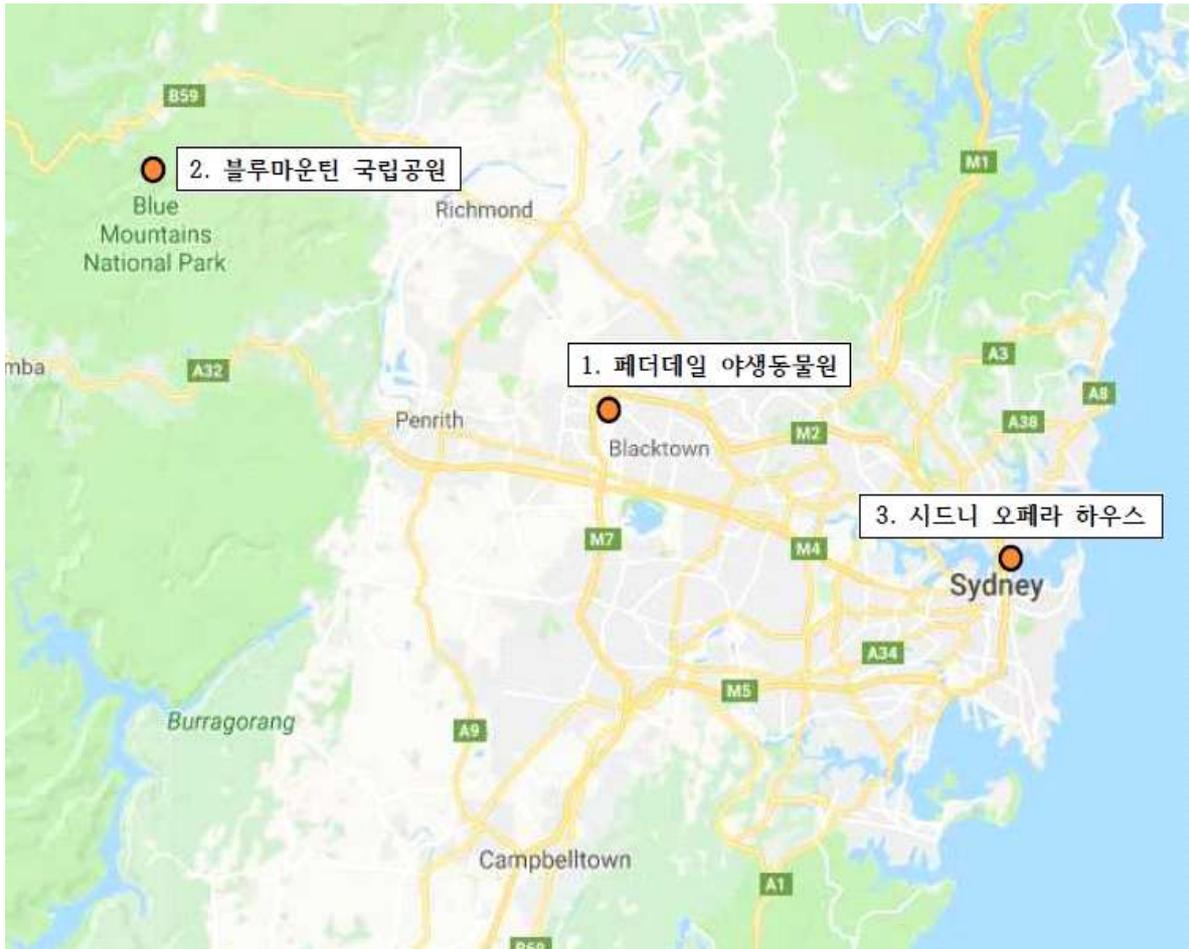


■ 주요 동선

- 4일차
: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 테카포 출발 (3시간) → 1. 테카포 → 중식 → 오마라마 출발 (1시간)
→ 호텔 투숙 및 석식
- 5일차
: 호텔 조식 후 마운트 쿡 출발 (1.5시간) → 2. 마운트 쿡 트래킹 → 트위젤 출발 (1시간) →
중식 → 퀸스타운 출발 (2.5시간) → 3. Gibbston Valley Wines → 테아나우 출발 (2.5시간) → 석식
- 6일차
: 호텔 조식 후 밀포드 사운드 출발 (2시간) → 4. 밀포드 사운드 Day Cruise → 퀸스타운 출발 (4
시간) → 석식 → 호텔 투숙
- 7일차
: 호텔 조식 후 애로우타운 출발 (1시간) → 5. 애로우타운 → 6. Shotover Jet → 퀸스타운
공항 출발 → 시드니 출발 (3시간)

▣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지

1. 페더데일 야생동물원
2.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3.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4. 시드니 항만청
5. NSW주 다문화청



■ 주요 동선

- 7일차

: 시드니 도착 → 석식 → 호텔 투숙

- 8일차

: 호텔 조식 후 1. 페더데일 야생동물원 (1시간) → 2.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1시간) 및 중식
→ 3.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2시간) → 호텔 투숙 및 석식

- 9일차

: 호텔 조식 후 4. 시드니 항만청 → 중식 → 5. NSW주 다문화청 → 만찬 → 호텔 투숙

- 10일차

: 시드니 국제공항 이동 (40분) · 출발 → 인천 도착 (11시간) → 연수종료

Ⅲ. 방문국 기본현황

1. 뉴질랜드(New Zealand)

□ 일반 현황

- 국 명 : 영어 이름 - 뉴질랜드(New Zealand)
 마오리어 이름 - 아오테아로아(Aotearoa)
- 면 적 : 27만km²(한반도의 1.2배)
- 인 구 : 약 474만명(2016년) ※ 북섬에 약 76% 거주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인 종 : 유럽인 68%, 마오리족 14%, 아시아계 9.2%, 폴리네시아인 6.9%
- 종 교 : 성공회(17%), 카톨릭(14%), 개신교(11%)
- 기 후 : 4월 평균기온 11.3℃/17.3℃, 평균강수량 86.8mm/9일
 (서울의 4월과 비슷)
- 언 어 : 영어(공용어), 마오리어
- 화폐단위 : 뉴질랜드 달러(NZ)
- 총 GDP : 1,738억불(2015년) / 1인당 GDP : 37,808불(2015년)
- 교민현황 : 약 30,174명(2014년)
- 입출국자 현황 : 한국인 뉴질랜드 방문 82,238명(2016년)
 뉴질랜드인 한국 방문 31,623명(2016년)



뉴질랜드 국기

: 1865년 뉴질랜드 상선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1902년 6월 국기로 제정. 진한 파랑 바탕의 왼쪽 위 유니언 잭은 영국연방의 일원임을 나타냄. 흰색 테두리의 빨강 5각별 4개는 남십자성, 진한 파랑은 남태평양을 나타내며 별들의 위치는 남태평양에서의 이 나라 위치를 나타냄.

□ 정치·사회 동향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 현재 상황

- 2008년 11월 총선거 이후 2011년, 2014년 3선 연임에 성공한 존 키(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경제 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 정치 체제

-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의 권한은 영국 여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있으며,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짐. 단, 뉴질랜드 총독은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 선거 제도

-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혼합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이하 MMP)방식으로 매 3년 마다 총선을 실시한다. MMP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당의 의원 수가 정당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 201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71명, 비례대표 49명 총 120명 (초과의석 제외)으로 정해졌으며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원수를 배정받는다. 배정받는 의원 수에는 지역구 당선의원과 비례대표가 혼합되어 있어 지역구 당선 의원이 많으나 정당득표율이 떨어지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수가 적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1명이상 당선 또는 정당득표율 5%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정당에 한한다.
-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10%를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배정되어 있으며 마오리 지역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모두 마오리족에게만 부여한다.
- 선거권은 뉴질랜드 시민권 및 영주권자는 물론 1년 이상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 자에게만 부여한다.

○ 행정부

-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한다.
-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한다.

- 일부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담당 장관들이 존재하며 일개 장관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한다.
- 지방 행정조직은 16개 Region, 13개의 City, 53개의 District, 1개의 특별 Territory(67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 (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한다.

○ 사법부

-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는다.
- 우리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다.

○ 의 회

- 영국 의회는 1852년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하여 뉴질랜드 의회를 인정하였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2016년 기준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거주자중 1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선거구에 1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있다.

□ 주요 산업 동향

-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7.80%, 2차 산업이 19.05%, 3차 산업이 65.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9%로 OECD 평균인 26%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며 매년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시장규모로 인한 한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식품제조업과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이다.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2012년에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에 매각된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을 2008년도에 태국으로 이전한 바 있다.

□ 한국기업 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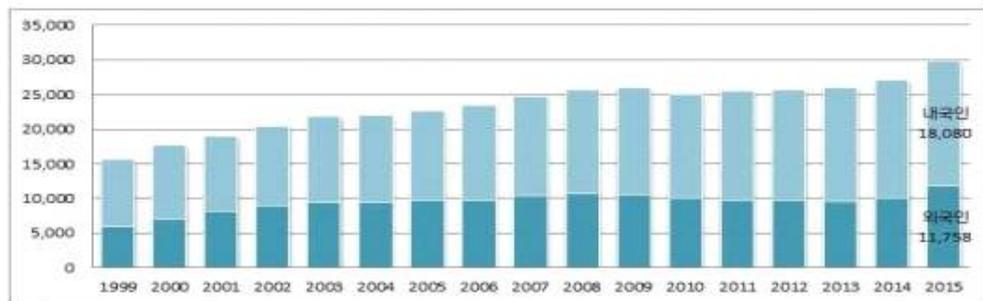


□ 뉴질랜드의 관광산업

- 뉴질랜드에서 관광산업은 미래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매년 경제에 186억 달러를 공헌하고 있다. 뉴질랜드인 10명 중 1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듯이 관광은 고용에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뉴질랜드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만들고 해외로 파는 다른 수출 분야와는 달리 사람이나 장소, 음식, 와인과 경험 등 뉴질랜드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가장 큰 수출 분야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298억 뉴질랜드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낙농업의 수출액을 추월하였다.

<연도별 관광 매출액 변화>

(단위: NZD 백만)



※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2016년 9월 확인가능 최신자료)

- 뉴질랜드의 관광전략은 보호와 환대라는 두 가지 주요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만족을 증대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관광비전을 향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뉴질랜드 관광비전

1. 뉴질랜드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한다.
2. 뉴질랜드의 관광부문은 발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한다.
3. 관광은 환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
4. 관광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뉴질랜드 관광목표

1. 방문객 만족도 증대
2. 방문객들의 소비비용 증대,
3. 계절성에 따른 영향 감소
4. 최상의 환경적인 경험 제공
5. 긍정적인 공동체 결과 창출

□ 뉴질랜드의 영화산업

- 뉴질랜드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촬영한 “반지의 제왕”을 기반으로 인구 400만의 낙농국가에서 새로운 영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뉴질랜드 영화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영화 “피아노”가 3개 분야의 오스카상을 타면서부터, 이후 국제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하여 저렴한 촬영비용을 고려한 비디오용 영상물 촬영지에서 탈피하여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대작의 촬영지로 급격히 변모하였다.
- 디즈니의 뉴질랜드 남섬 세트장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고 반지의 제왕 이외에도 톰 크루즈가 제작한 라스트 사무라이,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 앤드류 애덤슨 감독의 7부작 나니아 연대기 등 대작의 로케가 이루어지고 있다.
- 뉴질랜드의 인지도가 상승된 요인을 살펴보면 많은 재능있는 영화인들의 기여, 값싼 제작비, 기술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천혜의 자연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캐나다와 호주에 비해 영화 제작비가 30% 낮은 수준이며, 외부인들의 체류비용이 저렴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높은 컴퓨터 그래픽기술력과 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미국 등과 비교해 국토면적은 적으나 다양한 경관을 배경으로 전국토가 영화의 배경지로 촬영될 수 있다. 북섬의 화산지대와 바다를 낀 새하얀 모래 백사장, 남섬의 빙하지역, 눈 덮인 산맥 등 일년내내 촬영이 가능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 영화산업이 뉴질랜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막대하다. “반지의 제왕” 마지막편이 개봉됐던 해에는 주인공의 이름을 딴 프로도 이코노미(Frodo Economy)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도 24억 4천만 불의 순이익을 창출하였다. 영화 상영으로 뉴질랜드의 국가이미지는 제고되었으며, 광고효과와 관광수입 증대,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뉴질랜드는 연평균 5.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관광청에 따르면 자국방문 관광객 가운데 10%가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찾기 위해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
- 뉴질랜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기관인 NZTE(New Zealand Trade&Enterprise)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에 대폭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영화 촬영팀에게 숙박, 교통 등 전 부문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뉴질랜드 노인복지정책

- 뉴질랜드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1938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란 통일입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통합된 법으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것보다는 훨씬 충실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전공하는 학자들로부터 세계 최초의 완벽한 사회보장법이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 현재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적용하는 구미 여러 나라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모두 조세부담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근로자나 기업주가 보험금을 각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국가가 즉각 이에 대응하는 생활보장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돼 있다. 그러한 점에서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뉴질랜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걸쳐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와 모국인 영국의 EC 가맹 등 새로운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문제점이 겹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만은 종전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노인복지만은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다.
- 뉴질랜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 중 하나는 노령연금제도다. 노령연금은 사회복지성(Ministry of Social Welfare) 산하의 소득보장서비스국에서 관장한다. 뉴질랜드의 현행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은 20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이 65세에 도달했을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지급된다. 단, 질병치료나 직업훈련, 선교 및 봉사의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일시 떠났었거나, 외국에서 일하면서 뉴질랜드에 세금을 낸 경우, 뉴질랜드 소유의 선박에 근무해 외국에 나가서 일해야만 했던 사람은 예외가 인정된다.

- 노인들이 수급하는 노령연금의 급부액은 독신자 단독가구인 경우는 주당 310달러(이하 뉴질랜드 달러), 공동생활을 하는 독신자의 경우 285달러, 부부 공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1인당 225달러,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235달러를 지급받는다. 뉴질랜드 노인들이 이 정도의 금액으로 1주간 생활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는 경제지표나 물가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금액이다. 다른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이 돈은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다.
- 뉴질랜드는 노령연금의 급부에 있어 종전에는 평균임금의 75%였던 것을 58% 수준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2001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해서 특별부가세(Tax Surcharge)를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종전에는 60세 이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연금재정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노동의욕 저하를 막아보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본다.
-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95% 이상이 노령연금 수급자다. 전국규모로 실시된 가계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총수입 중 노령연금 급부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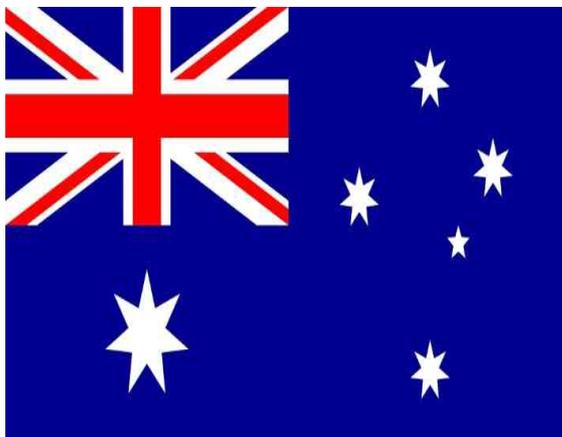
66.5%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노령연금이 뉴질랜드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주된 기반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 직장에서 퇴직하기는 했으나 아직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서는 ‘퇴직일시급부제도’(Transitional Retirement Benefit)가 마련돼 있다. 노령연금과는 달리 퇴직일시급부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필요로 하며, 급부액에 있어서도 노령연금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또한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고령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그러한 경우라도 자산조사 등을 통해 일정소득 이하임이 확인되면 소득보장급부를 수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급부제도로가 질병급부(Sickness Benefit), 과부급부(Widows Benefit), 장애급부(Invalid’s Benefit), 그리고 가사전업수당(Domestic Purpose Benefit) 등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노인복지종합계획(The New Zealand Positive Ageing Strategy) 수립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매년 1회씩 노인복지부(The Office of Senior Citizens) 주최로 관계 기관장,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그리고 노인문제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간담회’(consultation meeting)를 개최한다.
-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대부분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뉴질랜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은퇴자빌리지(retirement villages)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퇴자빌리지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종전에 살았던 주택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호주(Australia)

□ 일반 현황

- 국 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면 적 : 768만km²(한반도의 35배)
- 인 구 : 약 2,394만명(2015.6월)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인 종 : 앵글로색슨 80%, 아시아, 원주민(애보리진) 및 기타 20%
- 종 교 : 기독교(67%), 무종교(26%), 기타(7%)
- 기 후 : 4월 평균기온 6.6℃/19.8℃, 평균강수량 49.5mm/7일
(서울의 4월 중순기온과 비슷)
- 언 어 : 영어
- 화폐단위 : 호주 달러(AUD)
- 총 GDP : 1조 2,566억불(2016년) / 1인당 GDP : 51,430불(2016년)
- 교민현황 : 약 15만 4천명(2015년)
- 입출국자 현황 : 한국인 호주 방문 약 28만 6천명(2016년)
호주인 한국 방문 약 13만 6천명(2016년)



호주 국기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공모를 통해 1909년에 제정, 1953년 현재 디자인으로 수정됨. 진한 파랑 바탕의 왼쪽 위 유니언 잭은 영국 연방의 일원임을 나타냄. 그 아래 7각 큰 별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구성하는 6개 주와 기타 영토를 의미하며, 오른쪽 5개의 별은 남십자자리를 표시

□ 정치·사회동향

○ 호주 역사

- 1788년 1월 미국의 독립으로 새로운 죄수 유배지 필요 및 경제적, 전략적(해군기지) 필요에 의해 영국은 Arthur Phillip 선장 인솔하에 11척의 선박으로 1,5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영국인을 이주시켜 현 시드니지역에 죄수유배지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식민지 역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1788년 1월 18일 Botany Bay(시드니 남부)에 도착했으나, 1월 26일 정착여건이 보다 양호한 Port Jackson(오늘날 Sydney)으로 옮겼으며 이날을 국경일(Australian Day)로 기념하기로 했다. 죄수의 호주 유배는 뉴사우스웨일즈에는 1840년까지, 서부호주에는 1868년까지 계속돼 80여년간 16만 명이 이주했다.
- 1823년 메리노양 도입으로 양모산업 등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죄수유배지를 식민지로 전환, 육상 및 해상탐험 등으로 식민지역을 확장해 6개 식민지를 건설했다. (현 6개주로 발전)
- 1840년대 죄수노동을 점차 자유이민 노동으로 대체해 호주대륙이 시드니·멜번 등 수개의 식민지역으로 분리되고 각 식민지 별로 독자적 행정 조직·조세 체계 보유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 자본주의 경제발달

- 1851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금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된 골드러쉬에 의한 경제호황으로 이민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건설, 교통 및 체신 발달, 각종 산업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하는 한편, 노동운동도 발달했다.
- 1855~1859년에는 영국, 호주 내 각 식민지 헌법 및 자치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1823년 뉴사우스웨일즈가 제한된 입법권을 취득한 이래 식민지 각 지역은 서서히 자치체제를 확립했다.
- 이후, 1887년 골드러쉬에 의한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저임금 중국인 노동자가 대량 유입돼 임금 경쟁이 초래, 백인 노동자는 유색 인종에 대한 배척운동 시작(白濠主義의 기원)됐다.
- 1890년대에는 경제발달로 무역, 관세, 교통 및 체신의 통합운용 필요성, 저임금 유색인종의 유입 저지, 국방문제 및 백색 단일인종의 공동운명체 의식 고조 등으로 연방제 운동 본격화됐다.

○ 정치체제

-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로,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호주는 1901년 6개 영국 식민지(현재 주)가 합의해 창설한 연방제 국가로, 권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에 분산돼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하고, 잔여권한(residual power)은 주정부에 귀속된다. 조세, 경쟁정책, 노동법 등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 변화나 개혁을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 간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 호주 헌법은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confidence), 부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ministerial responsibility), 내각의 연대책임(cabinet responsibility)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하원 다수당 당수가 행정부 수반이 되며,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의 다수당 지위(특히 상원까지 장악한 경우)를 이용, 3가지 관습에 대한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의회(Parliament)는 호주 연방정부 시스템의 핵심으로,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하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의 권한을 보유한다.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외교문서에 국가원수로서 총독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전상으로도 총독이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 연방총독은 외국 국가원수와 대사 접견, 내각선서, 의회개원 등의 의례적 역할 외에,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의회의 소집, 정회, 해산, 법률안 동의 및 거부, 각료임명, 법관 임명,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군 총사령관으로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 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며,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 기관인 연방 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실질적으로는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의 결정)을 받아 행사하며 실제로 총리가 선호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총독은 일반적으로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의례적이고 공식적 역할만을 하고 있으나, 헌법 규정에 의해 때로는 강력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각 원은 각기 다른 대표 원리와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총독에 의해 해산 가능하다.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되며,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하다.
- 상원은 연방을 구성한 각 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구수에 관계없이 6개 주에서 각 12명씩, 연방직할2개 자치구(캔버라 수도권인 ACT와 Northern Territory)에서는 각 2명씩 선출돼 총 76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이 선거에 의해 새로 선출되며 2개 자치 지구 상원의원 임기는 3년이다.
- 하원은 인구비례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150명(인구 증감에 따라 조정가능)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하원은 주요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와 선호투표 제도로 선출되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정부 구성이 용이하다.

- 헌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는 정당정치 중심무대로서, 법안 및 정책 심사 등 의회의 주요기능은 與野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과 토론, 표결을 통해 추진되며 특히 하원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내각과 제1야당 당수를 중심으로 하는 음영내각(Shadow Cabinet)간 정책대결 토론 형식이다. 의사당에서 정부 내각이나 음영내각 각료들의 뒤편에 앉는 평의원을 back-bencher라 하며, 주로 초, 재선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핵심당직이나 각료직을 맡지 않고 있다.

○ 사회동향

- 호주 정부는 2012년 10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며 아시아 백서 (Australia in the Asia Centuries)를 발표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6대 전략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TCC, RCEP 등의 아태 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014~2015 회계연도 이민자 상위유입국이 아시아국가로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대양주의 아시아 출신 기술 이민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비자 규정 역시 완화해 보다 많은 아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인종이 호주로 이주하고 있다.

○ 타 문화권과의 갈등

호주가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호주 사회에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인종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류 문화인 서구 기독교사회를 적대시하는 이슬람과 같은 특성이 강한 문화권에서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인한 사회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들어서는 이라크와 시리아등 중동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호주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다수의 호주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다문화를 표방하는 호주사회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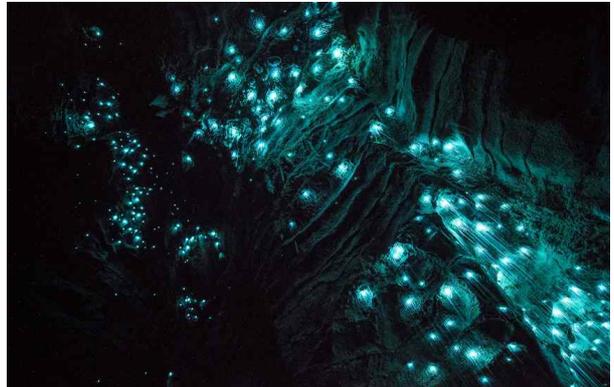
호주의 다문화를 커버로 다룬 타임지

IV. 일자별 방문지역(기관) 소개

< 4. 9(월) >

□ Waitomo District (와이토모) 구 및 지역생태자원 활용 우수사례지 Glowworm Caves(석회암 동굴) 방문

- 와이토모 구(Waitomo District)는 뉴질랜드 북섬의 킹컨트리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 구이다. 구의 작은 부분으로 티로아 타운이 있고, 마너와투 왕거누이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 '와이토모'라는 지명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Maori)의 언어로 '석회암 지대의 움푹 패인 땅'을 의미한다.
- 와이토모 구 의회는 테 쿠이티에 있으며, 그곳의 인구는 4,419명으로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한다.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구도 인구 500명을 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6년 인구 조사에서 9,441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39%가 마오리족이었다. 이 구의 전체 면적은 3,546.76km²로 94.87% 와이카토 지역에 위치하며, 5.13%만 마너와투 왕거누이 지방에 있다. 와이카토 구는 1976년에 지정됐다.
- 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목양과 임업, 그리고 석회암 채석업이 있다. 이 지역에는 카르스트 동굴인 와이토모 동굴이 가장 유명하며, 테 쿠이티의 북서쪽 12 km 지점에 있다. 이곳 와이토모 지역에는 많은 다른 석회암 동굴들이 발견된다.
- 와이토모 동굴은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Worm)'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로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그로우 웜을 관찰한다.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똥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 석순과 종유석을 관찰할 수 있는 200만년된 종유동굴로써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이곳에서 서식하는 글로우웜은 하나의 지역생태자원으로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 영화촬영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지(Hobbiton Movie Set)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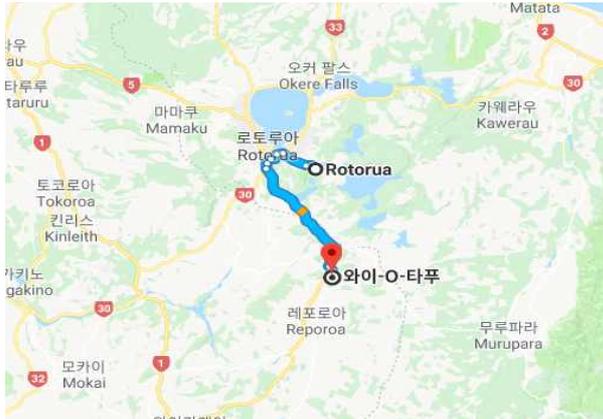
- 영화는 영상과 음악, 내러티브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 콘텐츠이며 순수 미술이나 음악, 연극 등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도 크다. 특히 뉴질랜드는 영화가 국가이미지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 원작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고 또 이것이 게임, 캐릭터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지와 테마파크 개발로 이어지는 문화 연쇄효과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인 이른바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 호비튼 무비 세트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 3부작을 위해 사용된 호빗 마을(호비튼) 영화 촬영지에서 운영되는 영화 세트장이다. 유명한 영화 촬영장을 탐방하면서 전원생활의 일면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이 가능하다. 탐방을 시작하면서 그림처럼 펼쳐진 1,250에이커 규모의 양목장을 가로지르며 카이마이 산맥까지 펼쳐지는 전망을 감상하고, 12 에이커의 촬영장을 돌며 호비튼 무비 세트의 흥미진진한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호빗의 집, 그린 드래곤 인, 방앗간 (밀) 등 세트장 이곳저곳을 찾아가 보면서 와이카토 지방의 한 아름다운 목장이 어떻게 ‘샤이어’와 ‘미들어스’로 변모되었는지 알게 되며, 산업분석과 전략적 정책수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 스크린산업의 성장사례와 같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영화산업도 경제효과가 큰 범 국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4. 10(화) >

□ Wai-O-Tapu Thermal Wonderland (Wai-O-Tapu 지열지대) 방문

※ 마오리어로 ‘신성한 물’이라는 뜻



- 와이오타프는 신비한 온천지대로 15만년 전에 열수작용과 화산활동을 시작했으며 분출된 온천수는 와이오타포 스트림(지천)을 통해 와이카토 강으로 흘러간다.
- 와이오타프를 와카레와레와 지열지대 중에서 가장 화려한 간헐천이다. 분화구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물에 녹으며 노란색(유황), 적갈색(산화철 H), 흰색(실리카), 자주색(이산화망간), 오렌지색(안티몬), 녹색(액색유황/염화철), 검정색(유황·탄소) 등의 오묘한 빛을 만들어 낸다.
- 와이오타프는 진흙 풀(Pool)로 강수량에 따라 수심이 변하고 소량의 흑연과 원유(原油)로 인해 분화구 주위가 검은 색을 내는 악마의 잉크병(Devil's Ink Pot) 등 총 25개의 풀이 색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 와이오타프의 레이디녹스 가이저(Lady Knox Geyser) 간헐천은 불규칙하게 화산분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비누가루를 이용하여 매일 10시 15분에 간헐천 분출 장면을 보여준다. 비누가루의 주성분인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아래에 고인 뜨거운 온천수와 만나면 압력팽창을 일으켜 지상으로 물을 분출시킨다.

□ 신재생 에너지(지열발전) 운영 우수사례지 Wairakei Power Station 방문



- 와이라케이(Wairakei) 지열발전소는 뉴질랜드 북섬의 중앙부 즉 Taupo Volcanic Zone(TVZ) 내에 위치한다. TVZ는 다수의 칼데라와 단층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화산활동은 물론 심부로부터 지열수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산지역이다.
- 뉴질랜드는 태평양판과 호주판의 경계에 위치하며 북동방향으로 펼쳐진 Havre-Trough를 따른 배호분지 혹은 후열도분지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1년에 약 40-50mm씩 밀려들어 가면서 형성된 대륙확장 지역으로 북쪽의 해양지각에서는 Havre-Trough 후열도분지가 생성되고 이 분지는 매년 15-20mm씩 확장이 일어난다. Havre-Trough 내륙 연장선상에서는 지각의 융기가 발생하고 융기에 의해 지각이 갈라지고 침각하여 TVZ를 형성한다. 이후 많은 화산활동과 화산 쇄설물들의 퇴적을 반복하여 TVZ가 형성되었다.
- 와이라케이(Wairakei) 지열발전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으며,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 1958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Larderello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 지열발전소가 되었으며, 특히 열수우세형 저류층으로 “Separator”를 가장 먼저 사용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열발전을 시작한지 처음 20년간은 생산에 따른 저류층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5bar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자연적인 재충전과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한 재주입의 영향으로 저류층 압력이 안정화되었다. 이 지역의 지열발전은 Contact Energy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쉬지 않고 시추를 통한 지열개발이 이루어져 이 지역에서만 총 397MWe의 지열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 와이라케이(Wairakei)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냉각수는 발전소 바로 옆을 흐르는 Waikato강의 물을 끌어와 냉각수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하천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낮은 온도의 하천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므로 여름철에도 발전량의 저하가 거의 없고, 공기냉각 방식에 비해 월등히 그 효율이 높다. 또한 냉각에 활용된 물에는 황화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에서는 이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기 전에 미생물을 이용한 냉각수의 정화 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생물 반응 튜브라 이름 붙여진 이 설비를 이용하여 95% 이상의 황화물을 제거한 후 Waikato강으로 흘러 보내게 된다.
- 뉴질랜드는 지열발전에 의해 전체 전기에너지의 16%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열을 포함하여 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전체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75%를 조달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열을 위용한 민물새우양식 성공사례지 Huka Prawn Park방문



- 후카 새우 농장은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지열 온수를 이용하여 새우양식을 하는 곳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다. 1년에 약 3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농업기술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후카 새우 농장은 지열발전소의 지열 폐수원을 활용하여 자이언트 말레이시아 새우를 양식하고 있다.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온이 요구되는데, 이를 지열발전소의 온폐수 열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섭씨 90도 이상의 물을 여름에는 시간당 250톤, 겨울에는 시간당 400톤의 물을 활용하여 양식하고 있다.

< 4. 11(수) >

□ 뉴질랜드 복지제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케어센터 및 은퇴자 빌리지 방문

-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노인 수당을 일괄적 지급방식으로 확대했다. 20세 이후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그중 절반인 5년을 50세 이후에 거주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65세부터 가구형태에 따라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뉴질랜드 가구 평균 수입의 65% 수준으로 정해진다. 혼자 사는 노인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140만원(2014년 기준)을 받는다.

뉴질랜드·일본·한국의 연금제도

국가	연금제도	내용
뉴질랜드	보편적 노령연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40만원 지급
일본	후생연금·개호보험	후생연금(근로자) 가입자 소득대체율 60% 육박
한국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20만원 지급

-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보편적 노령연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에선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세금에서 별도 항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은퇴세(retirement tax)'란 명목이다. 현재는 노령연금 지급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될 2020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질 좋은 실버문화 확산을 담당한다. 뉴질랜드 전역에 33개 지부를 보유한 최대 노인 시민단체인 '에이지 컨선 뉴질랜드'는 1년에 300여 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처럼 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뉴질랜드에 100여 개나 된다.



〈어예지 커션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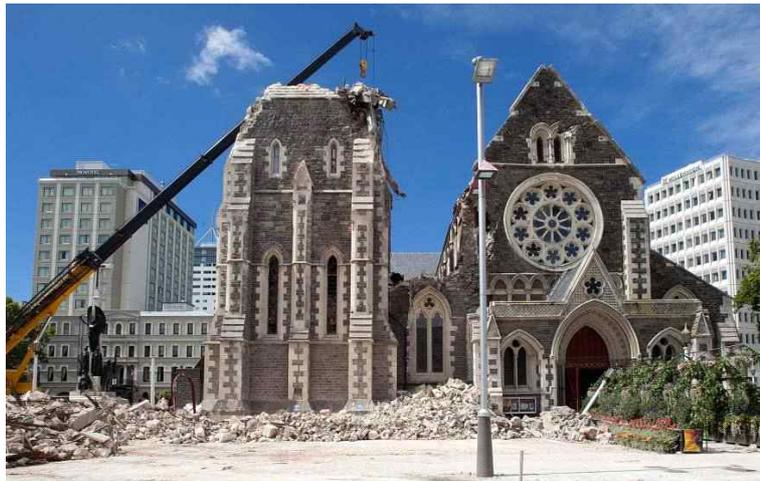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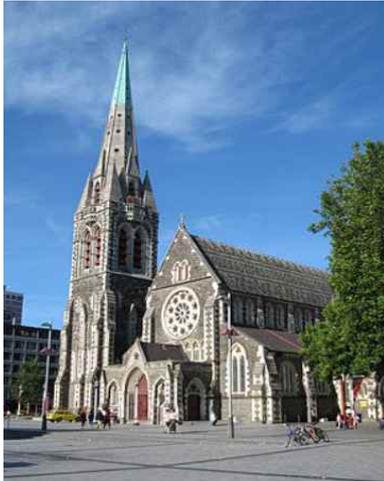
- 이들 비영리기관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비중이 높다. 실제로 이 단체의 1년 운영예산 35만달러 중 정부 보조금은 20%에도 못 미치는 6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웰링턴 사무소에 직접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4명에 불과하지만 1년에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 뉴질랜드의 은퇴자빌리지의 주택형태는 독립적 주거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은퇴자부락의 주거시설 중에는 손질이 잘된 정원, 그리고 공용식당이나 오락시설 등이 완비돼 있는 곳이 적지 않다.
- 노인들이 은퇴자부락에서 생활할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가옥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어려운 노인은 국가로부터 주택보조수당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의 은퇴자빌리지는 1970년경부터 주로 교회를 모체로 하는 비영리조직이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 현재 뉴질랜드에는 350여개소에 달하는 은퇴자빌리지에 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러한 부락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현존 은퇴자빌리지의 73%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부락은 20%를 약간 상회한다.



□ 크라이스처치 지진 복구 현장(도시재생) 방문(New Regent Street & Container Mall)

○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 뉴질랜드의 남섬 동쪽에 있는 캔터베리 지방의 주요 도시로, 남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도시 인구는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대도시권이기도 하다.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알려진 해글리 공원 등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서 '정원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
- 캔터베리 대평원을 배경으로 곡물양모농기구의 거래가 활발하고, 고무식품 등의 공업도 발달되어 있다. 1850년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외항(外港) 리틀턴에 거주하기 시작한 뒤 점차 도시로 발전하였다. 장대한 교회와 캔터베리대학교 및 박물관 등이 중후한 영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2010년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해 크라이스트처치를 비롯한 남섬 곳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시 중심이 심하게 파괴되고, 강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던 것은 뉴질랜드의 엄격한 건축법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2011년에도 크라이스트처치 부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지진의 여진이라는 견해와, 독립된 지진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피해는 2010년도에 비해 극심하여 건축물이 크게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 수백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New Regent Street (뉴리젠트 스트리트)



- 1930년대에 조성된 ‘뉴리젠트 스트리트(New Regent Street)’는 아름다운 스페니시 스타일의 파스텔톤 건축물 40여 개가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보행자 전용 상점가다. 모든 상점의 디자인, 형태, 색상 및 규모를 일관되게 조성하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개성 넘치는 거리 풍경을 변함없이 잘 보존해오고 있다.
- 거리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부터, 기념품 가게와 보석 상점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1994년에는 상점가 사이로 트램 라인이 설치되어, 쇼핑을 즐기다 상점가 사이로 지나다니는 트램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
- 인근의 ‘아이작 씨어터 로얄(Isaac Theatre Royal)’은 과거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의미깊은 명소이다.

○ Container Mall(컨테이너몰)

- 지난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리히터 규모 6.3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심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수습하기 위해 시에서 선택한 것은 알록달록한 색깔을 지닌 컨테이너 박스들이었다.
- 60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식당으로, 옷가게로, 카페로 각각 변신하면서 ‘리스타트몰(Re:start Mall)’로 불리는 새로운 쇼핑센터로 거듭났다. 현재 리스타트몰은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사랑받는 대표적인 쇼핑몰이자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이다.



< 4. 12(목) >

□ 걷는 길의 관광자원화 추진 우수사례지 방문 (Mount Cook Tracking 코스)



- 마오리어로 아오라키(Aoraki)로 불리우는 마운트 쿡과 주변지역은 뉴질랜드의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이다. 마운트쿡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3754m 에 달하며 일년내내 만년설로 뒤덮혀 있어 신비롭고 웅장한 느낌을 안겨준다. 에드먼드 힐러리경이 에베레스트 정복전에 등반을 연습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남태평양 최고의 등반코스로 꼽힐만큼 산세가 험하지만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레벨에 맞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 트레킹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산의 풍광을 즐기는 여행의 한 형태이며, 이런 등산을 하는 사람을 트레커라고 한다. 1,000미터 대의 국내 산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등산인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악 여행이 바로 트레킹이며, 한 여름철 빙하계곡에서 고산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뉴질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트램핑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 뉴질랜드의 트레킹은 야외에서의 즐거움 향유, 자연적이고 전원적인 아름다움의 감상,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체험, 육체적인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목적하고 있다.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 우수사례지(Gibbston Valley Wines) 방문



- 뉴질랜드는 최근 품질 좋은 와인 생산국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잘 구축되어 있는 관광시스템(지역별 관광센터 구축, 여행자 숙소의 다양화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와이너리 방문 프로그램이 매우 유명하다.
- 뉴질랜드는 비록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전통국보다 그 양조의 역사가 현저히 짧으나 꾸준한 와인 양조기술 발전으로 이미 그 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문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지의 홍보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별로 포도수확축제나 와인페스티벌을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개최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축제를 즐기게 하며 자연스럽게 그 지역 와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 퀸스타운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깁슨 벨리는 1860년대 골드러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뒤 골드러시는 끝났지만 이 지역의 포도밭은 해가 갈수록 풍요로워져 16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와인콘테스트 골드메달에 빛나는 와인산지가 되었다. 깁슨 벨리 와인은 피노 누아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의 와인 동굴로 다양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투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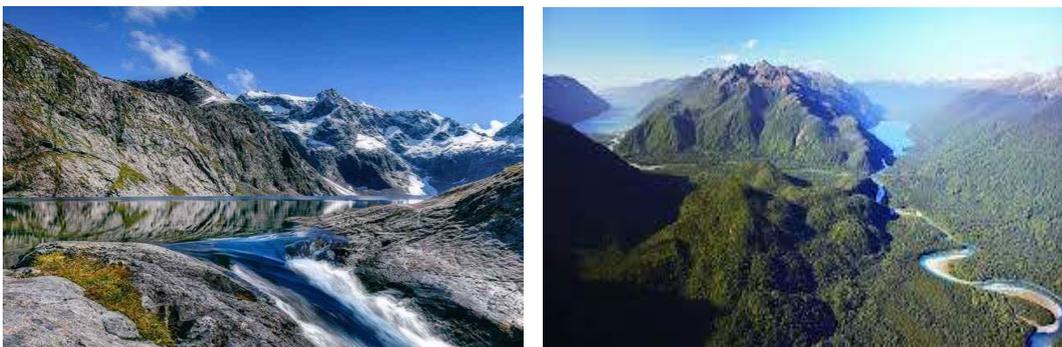
< 4. 13(금) >

□ 연안 크루즈 개발 우수사례지(Milford Sound Scenic Cruise) 방문



- 피요르드국립공원에 있는 14개의 지형 중 가장 유명한 밀포드사운드에서 탑승하는 크루즈이다. 최신식 모던 크루즈에 승선하여 빙하가 깎아내린 웅장한 봉우리들과 그 사이로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수들을 감상해 볼 수 있다.
- 연안 크루즈관광은 2~3시간 이내에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선상에서의 문화체험 이벤트를 실시하는 단기상품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밀포드사운드에서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선상에서 1박이 가능하다.
- 연안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여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와 같이 크루즈 수익모델 개발, 관광항로 개발, 선사 선박확보 지원, 관광 인프라 정비 등이 필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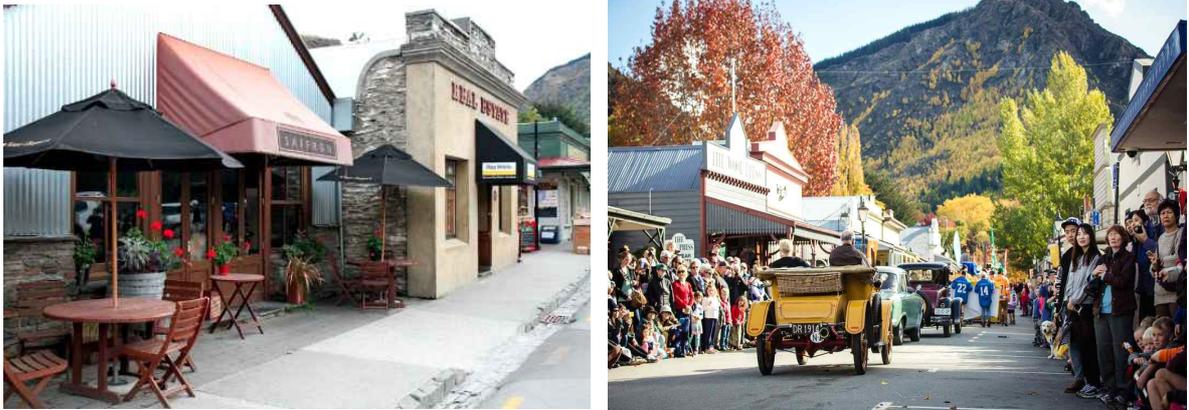
※ Fiordland National Park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



- 피오르드 랜드 국립공원(Fiordland National Park)은 피오르드 랜드로 알려져 있는 지역으로,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12,500km²)이며, 테와히포우나무 세계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빙하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속해있기도 한 곳으로 유명한 밀포드 사운드와 다투트폴 사운드, 더스키 사운드까지 14개의 피요르드 지형을 포함한다.

< 4. 14(토) >

□ 뉴질랜드 초기 정착인 마을 애로우타운(Arrowtown) 답사



- 퀸스타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고 경치 좋은 마을이다. 지금은 주민 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도시지만 한창때인 19세기 골드러시 시기에는 7,000명이 넘는 광부들이 모여들어 사금 채취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다.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옛 금광촌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중심가인 버킹엄 스트리트(Buckingham St.)를 따라 100년이 훌쩍 넘은 아담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고 몇몇 쇼핑가와 운치 있는 카페, 식당들이 자리한다. 애로우강변과 주변에는 광부들이 사용했던 오두막집과 상점이 남아 있어 견학이 가능하다. 이곳에 살았던 광부들은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2004년에는 1870년대에 지어진 중국인 광부 가옥들을 일부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고 오래된 박물관으로 알려진 레이크스 디스트릭트 박물관(Lakes District Museum)은 이전에는 은행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관광 안내소이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마오리 문화, 이민자 유물, 사금 채취 도구, 애로우타운의 역사 유물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물관에 비치된 안내 책자에는 애로우타운에 얽힌 독특한 역사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가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답게 매년 3~4월에는 '어텀 페스티벌'이 열리며, 특히 애로우타운의 황금빛 가을 단풍과 헤이어즈 호수의 송어 낚시터는 사진가와 화가들이 손꼽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체험관광 우수사례지 (Shotover Jet) 방문



○ 솟오버 제트는 솟오버 강에 있으며, 퀸즈타운에서 대략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솟오버 강의 급류는 이리 꼬이고 저리 굽이치며 남쪽 산으로부터 75km를 흘러내린다. 1970년부터 이 강이 전 세계의 3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건 비단 뛰어난 경관 때문만이 아니다. 뉴질랜드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모험 레포츠 산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 솟오버 제트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트 보트 활동 중 하나이다. 최고 시속 85km까지 달리는 보트를 타고 강물을 빠르게 통과하여 제트 보트를 타고 솟오버 강의 좁은 물길을 날아다니듯 한 체험이 가능하다.

○ 솟오버 제트는 면허증을 갖춘 운전자가 함께하는 제트 보트이며, 운전자는 독특한 솟오버 강의 물길을 잘 이용해 한층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강은 좁고 구불구불한 계곡으로 유명한데, 솟오버 제트의 운전자들은 이 특징을 잘 이용해 제트 보트의 재미를 더욱 끌어올린다. 하지만 솟오버 제트는 필요한 규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 기록이 좋기로 유명하다.

< 4. 15(일) >

□ 시드니(Sydney)



- 동부 연안에 위치한 시드니는 호주 경제의 중심지이자 최대의 도시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를 비롯해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 남반구 제일의 유흥가 킹스 크로스(Kings Cross), 고급 주택가 더블 베이(Double Bay),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본다이 비치(Bondi Beach)와 맨리(Manly) 등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지역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 바위 투성이의 황야였던 록스에 영국 이민자들이 1788년부터 살기 시작한 것이 시드니의 시초로, 시드니라는 이름은 당시 영국의 각료였던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로부터 약 210년간 목양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지금은 호주를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섬유·제분·정당·피혁·기계·화학·자동차조선·정유·제재·제지·차량·농기구 등의 공업이 활발하며, 공업지대는 시의 남부와 서쪽 교외 일대에 분포한다. 또한 시드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으로 시드니대학·뉴사우스웨일스대학·로마가톨릭 교회·성공회 교회·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국립미술관·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다.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센테니얼파크 등의 공원·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으며,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 자연자원 보존지역 사례 (Featherdale Wildlife Park) 방문



- 페더데일 동물원은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인 코알라와 캥거루 및 희귀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1972년 희귀 동물의 개체 수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안아보며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
- 최근 호주에서는 야생동물 관광산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야생동물만 90여 개로 특별한 전략 없이는 문을 닫기 십상이다. 페더데일 동물원은 ‘캥거루 밥주기’, ‘코알라 안아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호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관광객의 70%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호주를 찾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약 35만 명이 페더데일을 방문했다. 이 덕분에 동물원의 연매출은 920만 호주달러(약 85억 6000만원)에 달했다. 페더데일 동물원은 관광객 덕분에 매출이 높지만 운영비도 적지 않다.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먹이를 주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2013년도 운영비만 650만 호주달러이다.
- 페더데일 동물원에는 2000여 종의 동물들이 있으며, 사육사 등 관리 인력은 100여 명이다. 동물원의 마스코트인 코알라의 경우 보통 한 마리 당 사육사 두 명이 배정되며, 연간 관리비는 10만 호주달러이다.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방문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이다. 1959년에 개원하였으며,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공원 면적은 267,954 헥타르이며,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 지역은 고원지대로 강이 몇 개 흐르고 있다. 최고 지점은 웨롱 산(해발 1,215m)이며, 최저 지점은 네핀 강(20m)이다. 스리시스터스를 비롯해 협곡 경관으로 유명하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휘발되는 오일이 태양 빛에 반사되어 푸르게 희미하게 보이는 데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91종이나 되는 다양한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주종을 이루는 숲의 특징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다. 산지의 대부분은 붉은 색을 띤 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사암이 침식되면서 생긴 수직절벽들을 볼 수 있다.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는 호주 전체 관속식물상의 10%가 출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미소 서식지에서만 새존이 가능한 울레미소나무(Wollemi pine)와 같은 고유종과 진화적으로 오래된 종을 비롯하여 상당한 수의 희귀종과 멸종 우려종이 살고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생물 다양성을 잘 대표하는 곳이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칼립투스는 곤드와나 대륙 시대 이후에 고립된 상태에서 적응, 진화했다는 점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이 지역에는 습하거나 건조한 경엽수림, 말리 나무가 서식하는 황야 지대, 늪지, 습지, 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도 균형을 이루는 유칼립투스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 유칼립투스의 13퍼센트를 차지하는 90분류군의 유칼립투스가 서식하며, 4그룹의 대표 유칼립투스가 모두 이곳에 출현한다.

< 4. 16(월) >

□ 워터프런트 재개발 우수사례지 방문(시드니 항만청 및 달링하버 현장) 방문

※ 과거 단순 항만기능과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면서 관광도시 시드니의 입지를 약화시켰던 항구가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 사례(2000년이후 항만청 주도)

○ 개 요

- 시드니 달링하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테저 및 위락의 중심지이다. 달링하버의 재개발 사례는 달링하버를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달링하버가 재개발된 이후 이곳에 건설된 건축물이나 관광 상품이 정부 및 민간기관 주관 각종 상을 받기도 하였다. 시드니 달링하버는 약 18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US\$25억을 들여 1984년부터 1988년까지 1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현 달링하버 항만청이 주관이 되어 추진한 동 사업은 세계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6년 한해만 약 25백 만명을 상회하는 관광객을 유치시켰으며 4,000명이 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 달링하버 명칭의 유래

-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는 1788년 영국 정착민이 도착하면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시드니는 바다가 육지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 자연적으로 항구조건을 갖추어 방파제나 인공시설이 없이도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정착민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터전이기도 하였다. 초기 정착민들은 현 달링하버를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긴 만이라는 뜻으로 롱 코버라고 불렀으며 이후 코클베이로 개명되었다. 1800년대 초에 들면서 현재의 달링하버 서쪽에 해당되는 피어몬트 지역이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있었으며 달링하버 동쪽에 해당되는 코클베이에 최초의 정박시설이 이 시기에 설치되었다.

- 이 정박시설은 파라마타와 북부해안의 목재를 시내 시장으로 이동하는 하역장으로 활용되었다. 1826년 NSW주 9대 총독인 랄프 달링경의 이름을 따서 달링하버로 정식 명명되었으며 차츰 호주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달링하버 개발역사

- 달링하버 개발은 역사적으로 볼 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유럽 죄수들과 정착민들이 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788년부터 달링하버로 이름이 명명되기 전인 1825년이며, 2단계는 1826년부터 달링하버가 산업과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1983년까지이며, 3단계는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다. 현재 4단계 개발이 추진중에 있다.

구분	내용
1단계 개발 (1788~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링하버 동쪽지역만 개발 구역 안에 포함 · 벽돌공장이 설립되고 선착장 설치 · 1813년 증기발전을 이용한 공장이 설치되어 시드니 산업개발의 시초
2단계 개발 (1826~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시기 · 1826년 NSW 주 달링하버로 명명하면서 실제 항구의 기능 구비 · 정박장을 통해 각종 농산물들이 시드니 마켓으로 유통 · 1902년 시드니 중심지와 달링하버 주변지역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피어 몬트 다리 건설 · 1950년대 시드니에 전철 및 고속도로가 생겨 물동량 중심지로서의 기능 상실 · 1970년대 물류시설, 냉동 공장 등이 문을 닫기 시작, 정박하는 선박 수 감소 · 주정부에서는 시드니 하버 재개발 및 관리를 위해 여러 투자기관을 만들어 시드니 하버 지역을 현대적인 문화도시 중심지 개발 시작 · 선착장 및 하역장을 주상복합지구로 개발 · 주정부 시드니 항구 및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달링하버 개발계획 시행
3단계 개발 (1984~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달링하버 대부분의 현대적 시설 설치 · '달링하버를 시드니 시민에게 돌려주자' 라는 구호아래 달링하버법 제정 · 시드니 컨벤션센터건립을 시작으로 1988년 5월 공식오픈까지 시드니수족관, 해양박물관, 놀이공원, 중국정원, 하버사이드 쇼핑센터, 파워하우스 박물관 건립 · 이후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시드니 2대 관광명소로 급부상
4단계 개발 (2001~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산업단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트 달링하버를 수변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NSW (쥬시드니항만개발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05년 2월 디자인 공모전 개최 · 같은 해 5월 전 세계로부터 137건의 디자인이 응모되어 그 중 5건을 선정하여 시민들에 결과를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박물관에 전시



1875년

1932년

1980년



〈3단계 개발 전·후 달링하버의 모습〉

○ 제4단계 개발 추진

- 현재 산업단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트 달링하버를 수변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NSW주 시드니항만개발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05년 2월에 디자인 공모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에 전 세계로부터 137건의 디자인이 응모되어 그중 5건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박물관에 전시하였다. 2006년 3월 모리스 이에마 NSW주 수상이 이스트 달링하버 재개발 디자인 공모대상을 발표하였는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디자인 공모와는 달리 시드니팀이 대상을 받았다. 시드니팀이 디자인한 내용을 보면 총 22헥타르의 부지에 40개의 상업 및 주거용 빌딩을 건설하고 11헥타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안락 브리지를 시작으로 달링하버, 서큘러 퀴, 오페라하우스, 울루물루를 연결하는 시드니항 14km의 수변을 산책로로 연결하는 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NSW주정부에서 최종 개발계획안을 결정하여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 다문화 프로그램 정책개발 담당기관(NSW주 다문화청) 방문

○ 기관 개요 : NSW주정부 행정기관으로 주정부 다문화정책 총괄

○ 기관 역할

- NSW주 다문화청은 NSW주의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여 NSW주의 다문화 인구와 다문화 사회가 주 및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일을 수행
- NSW주 다문화청은 다문화청에서 수립된 **다문화 전략기획에 맞추어 각 주 산하기관이 이에 맞게 목표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이를 내각의회 및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 등에 보고

- ▶ 정책 및 연구분야에서 내각에 문서·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민인구들이 어떻게 호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배타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회에 NSW주의 다문화 관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
- ▶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다문화주의 계획에 따른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아 각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게시·공표함.

○ 호주의 다문화 정책

① 다문화국가인 호주와 Harmony Day

- 호주 정부는 호주의 다문화 사회를 장려하고 다양한 민족 문화를 축하하기 위해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 하나의 호주인으로 포함한다”라는 기치를 내세워 1999년 3월 2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바로 이 날이 "Harmony Day" 이다. 사실 3월 21일은 UN이 지정한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이기도 하다.
- 연방정부는 Harmony Day를 전후로 약 1주일간 "A Taste of Harmony" 라는 음식 축제를 연다.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서로의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독자적인 기념행사가 열린다.
-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의 의상, 헤어스타일을 활용한 Parade 축제를 개최하거나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호주 연방정부 “www.harmony.gov.au” 홈페이지>



<Harmony day 행사사진>

□ 호주 Harmony Day란?

-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 하나의 호주인으로 포함한다 (Everyone belongs)”라는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 호주의 다문화 사회를 장려하고 다문화의 국가 문화를 축하하기 위해
- 호주 연방정부(이민성DIAC)가 1999년 반인종차별주의 정책 “Living in Harmo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어 현재 호주 정부가 지정한 국가 기념일 - 매년 3월 21일
- “하모니 데이” 상징 색상은 주황색이며 당일 주황색 옷 또는 리본 착용을 통해 호주의 다문화 지지를 보여 주도록 권장

② NSW주 현 다문화 정책 기조 및 최근 10년 간 다문화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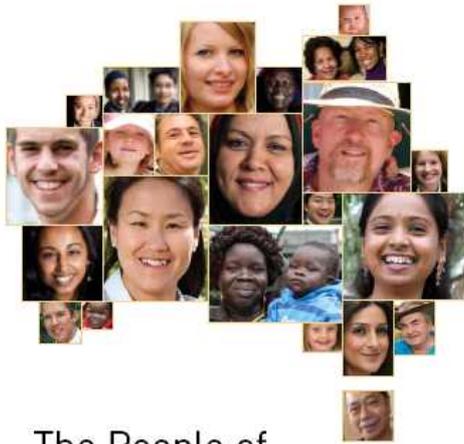
- NSW주의 인구는 약 750만으로 그중 170만이 해외출생자이다. NSW주와 호주의 역사는 이민에서 시작되었으며, NSW주 이민의 역사는 200년에 이르고 있다.
- 1900년대 최초 호주의 이민정책은 이른바 ‘**백호주의**’로 엄격한 이민 제한법 및 어려운 이민 테스트 등을 통해 주로 백인들에 대한 **제한적·선택적 이민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백호주의**’라는 선택적 이민정책을 철회하고, 기술이민자 및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등 **비차별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하였다.

③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갈등·분쟁 해결 프로그램 사례 등

- NSW주는 다문화사회의 통합 및 지역 갈등분쟁 해결을 위해 **12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하고,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대표자들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종교지도자 포럼, 청소년 지도자 포럼, 연간 심포지엄, NSW주 네트워크 포럼, 언어지원 포럼, 정착 지원포럼 등)
- 또한 최근 나타나는 다문화 양극화 현상 및 갈등문제에 대처 하기위해 지역사회 펀드를 조성하여 각 지역사회의 다문화 관련 NGO 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갈등문제에 대한 준비대응-회복프로세스**를 통해 문제 발생 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주민들의 언어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02개의 언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NSW주 다문화청은 주 산하기관의 모든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여 이를 계획·모니터링 함으로써 각 사업이 다문화 전략기획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12개의 다문화 지역의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사회의 요구가 주 및 지방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른 중앙정부 기관(교육부, 법무부, 경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이 모두 다문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문화 지원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각 정책 및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기관 간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간의 유사·중복성이 발생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호주와 같이 다문화 사회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The People of
AUSTRALIA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

